

지리산 발전에 7개 시군 뭉쳤다

이환주 남원시장 등 참여 단체장 연석회의서 공동발전 협력 건의문 채택

25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이환주 남원시장, 유근기 곡성군수, 임창호 함양군수, 허기도 산청군수, 윤상기 하동군수, 서기동 구례군수, 육영수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등 7개 시·군 단체장들이 연석회의를 개최해 향후 지리산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리산권 공동발전이 협력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그동안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은 지리산권 7개 시·군 자치단체장협의회와 오랜 노력의 결실로 2008년도 11월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조합으로 창립되어 지리산권역의 공동연계발전 및 영호남 소통과 화합을 위해 기여해 왔으며, 지리산권 통합관광기반 구축, 공동마케팅 기반 구

축 및 거점관광시설 투자 등 주요 성과를 달성해왔다.

이날 시군 자치단체장 연석회의에서는 2008년부터 10년간 진행해 오던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2017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한시적 기능에서 안정적 가능한 조직으로 변화·발전할 수 있도록 추가 사업에 대한 용역비 확보 등 운영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다. 또한 조합 조직의 기능강화, 지리산권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체계적인 지원 및 지리산권 통합연계관광 S/W 강화사업 지원 등의 3대 지리산권역 공동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7개 시·군 자치단체장 연석회의 개최를 위해 지난 4월 13일 개최된 부단체장 조합회의에서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공동발전의 공감대 및 조합의 역할에 대한 실행의지를 결집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7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영·호남 소통과 화합의 구심점이 되고 권역 내 관광기반 조성과 지리산 관광정보화 웹사이트 구축에 성과를 내는 등 자치단체조합으로서 시범적인 역할을 해온 조합의 운영기간 연장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며, 향후 지리산권 공동발전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치즈테마파크, 대표 관광지답게’

군, 이달부터 10월까지 어린이공연·비보이·필봉농악 등 프로그램 운영

최근 체험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전북 대표 토탈관광지로 급부상 중인 임실치즈테마파크가 세계적 내내 인기를 끌 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공연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25일 임실군에 따르면 2017년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전라북도 토탈관광 정책의 일환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대표관광지에서 매주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과 필봉농악, 비보이, 마술 공연 행사 등을 추진 중이다.

이들 문화공연 프로그램은 2017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체험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전북 대표 토탈관광지로 급부상 중인 임실치즈테마파크가 세계적 내내 인기를 끌 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공연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문화공연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체험관광객을 위한 인형극이다. 인형극은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주말에 무대에 오른다.

인형극단 콜러버스가 양치기소년 시로와 나트륨 별에서 온 왕소금대장, 호랑이님 100번째 생일잔치, 아가네지 삼형제 등 교육적인 내용을 담은 인형극을 선사한다.

또한 인형극단 사과나무의 토끼마을 노래자랑, 방귀며느리 뽀송이, 흑부리 할아버지, 심룡이의 꿈속나라, 꿀꿀이와 심술마왕 등 어린이들에게 흥미로운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임실군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인 임실 필봉농악도 빠질 수 없는 ‘항표’ 공

연이다.

임실필봉농악보존회는 지역의 다양 한 마을 전통세시 문화를 놀이공연으로 기획한 ‘살나와라 뚝딱~! 두레놀이’를 10회 정도 공연한다.

8월에는 아쿠아페스티벌이 기다리고 있다. 아쿠아페스티벌은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신나는 물놀이이다. 11일부터 15일까지 치즈테마파크내 야외공연장에 넓은 풀장을 설치해 아이들에게 시원한 여름나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 겨울에는 산타축제가 열린다.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크리스마스를 전후에 열리는 산타축제를 통해 가족 단위 체험관광객들의 즐거운 연말바 네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한다.

임실치즈테마파크가 체험관광객들의 사계절 맞춤형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올해 최대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4월 이후 임실치즈테마파크에는 체험관광객이 작년 대비 25% 이상 증가하는 등 개장 이후 올해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다.

임실치즈테마파크를 토탈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4D영상관, 아케이드 등랜드 조성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인 임실군의 다양한 노력이 관광객 물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임실치즈테마파크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홈페이지(www.cheesepark.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장 점검

강북대 남원시 부시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상황 점검 및 농가 건의사항 청취 등을 위해 25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지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관리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내년 3월 24일부터 위반 시 사용시설의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농가비용부담 및 무허가축사 유형의 복잡다양함 등으로 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숯가꾸기 사업 실시

순창군이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고품질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1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숯가꾸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숯가꾸기는 조림지가 800ha, 어린나무가꾸기 100ha, 큰나무가꾸기 80ha 총 980ha에 대해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조림지가꾸기는 입목벌채 후 조림지에 식재된 조림목 생육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풀베기 작업을 해주는 것이며, 어린나무가꾸기는 조림지가꾸기사업 단계 후 조림목 주변의 고사목 및 잡관목, 피압목 등을 제거 해주는 작업이다.

또한, 큰나무가꾸기는 건강하고 가치있는 숲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형질불량목, 고사목 등을 제거하고 대경재 생산을 위해 미래목 및 우량목을 가꾸어 주는 사업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씨치면 애호박 작목반 나눔 실천

순창 씨치면 애호박 작목반(반장 김종식)에서 정성껏 키운 애호박 8kg 1박스를 매주 장애인 무료급식에 제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씨치면 애호박 작목반 김종식 반장은 “큰 도움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한사람으로서 소의계층을 위해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료급식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식당에서 만난 한 장애인은 ‘이렇게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맛있는 점심 식사는 처음이라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장애인 무료급식은 순창 자활센터(센터장 한승연)가 전북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매년 4천만원을 지원받아 3년째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오지한과, '착한식당촌'에 입점

전통한과의 맛, 소비자 기호에 맞춰 판매

임실군 삼계면 '오지한과'가 수도권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임실군은 오지한과가 TV인기프로그래밍 채널A '떡거리 X파일'에서 선정한 착한식당촌의 디저트관에 입점했다고 25일 밝혔다.

착한식당촌은 '떡거리 X파일'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착한식당을 선정해 한 곳에 모은 곳으로,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문정동) 송파파크히비오 지하 1층 메인상가에서 지난 18일 오픈했다.

이 일대는 주변에는 워터파크와 영화관, 호텔들이 들어서 있는 초대형 복합단지로 상주 인구만 1만 5000명, 배후상권은 4만여 명에 이른다.

동아일보와 채널A, (주)식객촌이 추진한 착한 식당촌은 전국에서 까다롭게 엄선한 10개 음식점으로서 입맛이 까다로운 미식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오지한과는 착한 디저트로서 이

곳에 입주했다. 오지한과는 '착한식당촌' 디지털관에 입점해 전통한과 오리지널 그대로의 맛과 분위기를 소비자 기호에 맞춰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임실군은 오지한과 제품의 특색을 살려 전통한과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소포장 제품을 유통 판매함으로써 손쉽고 접할 수 있는 홍보 및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오지한과를 만드는 오지영농조합법인은 지난 10일 도지사로부터 지정서를 받아 올해 6000만원을 투입해 유통장비 구축과 공장자동화 설비, 공장환경개선과 마케팅,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지영농조합은 앞선 2013년과 2014년에도 마을기업으로 선정,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매출액이 2015년 6000만원, 2016년 8800만원으로 상승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내달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접수

순창군이 오는 6월 1일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행해 세금납부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를 마련해 시행되며 통장잔액 부족에 따른 가산금 부담 등 자동이체 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다.

자동납부 할 수 있는 세목으로는 등 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4종의 정기분 세목이 해당되며, 신청 가능한 신용카드는 I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등 9개사 카드다.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삼성체크 카드 등은 이번엔 해당되지 않으며 향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지방세 납기 월 23일 날 승인처리되며, 카드사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 승인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자와 납세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본인 및 납세자)을 지참하고 신청해야 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종합 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

